

## 日本에 流傳된 韓國版 釋家類典籍

沈 賜 俊\*

### 目 次

- |                |               |
|----------------|---------------|
| 1. 緒言          | 3. 朝鮮朝의 釋家類典籍 |
| 2. 高麗時代의 釋家類典籍 | 4. 結言         |

### 1. 緒 言

日本에 散在한 韓國版 韓·漢籍 중 釋家類典籍에 대하여는 여러 學者들의 調査가 이루어져 그 傳存實態가 거의 把握되고 있다. 그러나 그 報告書 중에는 韓國에 없는 逸書에 대해 혹 찾아진 것도 있고 아직도 찾아지지 않은 것도 있어 그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일찌기 朝鮮總督府에서 출간된 「朝鮮圖書解題」에는 釋家類典籍 34種이 紹介되어 있고 故金斗鍾 박사의 「韓國古印刷技術史」에는 위 책에 없는 逸書가 4種이나 밝혀져 있다.

이와 같이 逸書가 續出하고 있는 것은 壬辰倭亂을 틈타 掠奪해 간 典籍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實錄에 밝혀진 典籍이 國事의 論議에 聯關된 것만이 收錄될 수도 있을 것이고, 地方官廳에서 印出된 著述을 자상히 알 수 없는데도 원인이 있을 수 있고, 坊刻本이어서 目錄에 미쳐 수록될 수 없는데도 그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 日本에 散在한 釋家類典籍의 韓國版本을 살펴 보고자 한다.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객원교수  
접수일자 : 1995. 4. 20

## 2. 高麗時代의 釋家類典籍

日本에 散在한 7個處의 韓·漢籍 중에서 釋書類의 典籍, 특히 그 板本이 國內에 없는 逸書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20卷.<sup>1)</sup> 이 책이 우리 나라에서 刊行된 것은 金의 大安 10年(高麗 宣宗 11 : 1094)부터 睿昌 2年(高麗 肅宗 1 : 1096)까지 3年間에 亘하여 雕造된 續藏經이다. 續藏經이라고 하는 것은 臨時命名한 것으로서 其實은 어떤 名稱을 輯成한 15種의 佛典의 板이나 오직 高麗大藏經의 續과 같이 輯成해 있으므로 이와 같이 命名한데 不過하다. 혹 이것을 大藏經補板이라고 한듯 하나 高麗大藏에 65種을 加한 大藏이 아니므로 補板이라고 命名한 것은 不當하다. 어떻든 이 책은 華嚴相承第三祖法藏의 正意를 나타내려고 하여 80華嚴經의 疏를 만들었으나, 그 後人 僧叡 등을 위해서 먼저의 疏에 따라 뜻을 말한 本鈔이다. 通俗名稱으로는 演義鈔, 華嚴大疏鈔라고도 하며 唐의 澄觀(737~838)의 述이다. 內容은 名意·歸敬·釋文謙讚廻向 등 4段으로 區分되어 있다. 즉, 通判·序分·正宗分·流通 등이다. 疏는 教起因緣·藏教所攝·義理分齊·教所被機·教所淺深·宗越通局·部類品會·傳釋感通·總釋題의 9科와 玄談을 委釋하고, 文에 따라 解釋한 것이다. 東大寺 藏.

(2) 大方廣佛華嚴經離世間之二, 1軸<sup>2)</sup>

(3) 決定藏論<sup>3)</sup>은 高麗 高宗 30年(1243), 京畿道 江華에서 雕槧한 再雕本이다. 梵夾本으로 된 이 책은 三乘教의 根本論藏이 瑜伽師地論 一部의 舊譯이며 陰·界·四諦·因緣·二十二根인 勝智이다. 여기에는 10門이 있다.

1. 心意識門이다. 8種의 因緣을 가지고 阿羅耶識의 存在를 證明하고 5種의 義에 의하여 널리 分別한다. 그 因緣이란 根·本·分明·種本·諸識·身受·無識定·非氣絶이며, 그 義란 阿羅耶識이고, 內外二境을 인연하여 생기고, 五心所를 相應하고 나머지 意識과 서로 因緣하고, 諸識과 俱轉하고, 煩惱와 俱를 滅

1)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澄觀(唐)述, 續大藏經系 木板本, 高麗 宣宗 11~肅宗 5(1094~1096)刊, 20卷, 卷子本 40軸(東大寺 102. 1. 40-1).

2) 大方廣佛華嚴經離世間品之二 實又難陀(?)譯, 寫經體木板本, 高麗宣宗·朝鮮初, 37卷 1軸.

3) 決定藏論(卷下零本) 眞諦(梁)譯, 再雕本 高麗 高宗30(1243) 梵夾本 1帖(天 183·人 301).

하는 것이다.

2. 識身遍知이다. 行을 닦아서 마음을 精淨하는 것이다.
3. 二善巧의 差別
4. 道理를 證成해서 因緣을 決擇
5. 不相應法·生住·老·滅(無常) 등을 廣說.
6. 種子의 相, 善種子의 斷壞·種子의 安立을 說明.
7. 業의 義 즉 三性三業, 不律議 등을 밝힌다.
8. 二無心定, 즉 無想滅盡.
9. 虛空 즉 非擇滅.
10. 不相應法의 假想假立인 까닭을 가려내는 것 등이다. 梁나라 眞諦의 譯이며 卷下는 없다. 梵夾本 1帖, 天理圖書館 藏.

(4)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1卷.<sup>1)</sup>

(5) (御製) 祕藏詮, 10卷.<sup>2)</sup> 이 책은 高麗 高宗 32年(1245)부터 同 34年(1247)까지 사이에 高麗大藏都監에서 雕造된 것이다. 宋나라 太宗撰, 卷 1부터 20까지 1,000首를 모으고 卷21에는 佛의 賦 2首와 詮源歌 등 3篇卷 22부터 25에는 幽隱律의 詩 90餘首, 卷 26~30에는 百韻의 수록되어 詩가 수록되어 있다. 前 21卷에는 大乘의 諸論에 나타나 語句에 註했다. 卷 22이 하는 儒敎의 色彩을 띤 것이 大部分으로 이 詩는 外典에 의거한 것이다. 모두 1,000首 20卷이라 하나, 祕藏詮은 卷 21 이하는 附屬格으로 詩賦의 內容이 다르다. 內閣文庫藏.

(6) 大毗遮那成佛神變加持經, 卷4. 眞言蜜敎의 經典.<sup>3)</sup> 이는 眞言蜜敎의 經典, 唐나라 善無畏와 一行의 共譯으로서 7卷中 前 6卷은 無行禪師의 請來本을 無畏三藏이 譯했고, 第7卷 三藏 自身이 北天竺에서 가지고 온 經이다. 高麗 高宗 30年(1243)에 大藏都監에서 印出한 梵夾本 1帖, 慶應義塾大學藏.

(7)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名: 川老經.<sup>4)</sup> 漢武 20年(1387) 7月 25日에 쓴 李穡의 跋이 붙은 刊行地 未詳인 重刊木板本이다. 이 經은 空慧로서 根本을 삼고, 一切法無我的 理致를 궁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되, 내가 저들을

1)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法賢(宋)譯, 再雕大藏經木板本·高麗 高宗 32(1245) 刊後刷, 卷上, 1卷(梵夾本) 慶 64, 56, 1.

2) (御製) 祕藏詮, 太宗(宋)撰, 木板本, 高宗 32~34(1245~1247)刊, 10卷, 5冊, 內16442, 5(1).

3) 大毗遮那成佛神變加持經卷第四, 善無畏·一行譯, 木板本, 高宗 30(1243)年刊? 卷4, 1帖(梵夾本) 慶 110x29.1).

4) 川老金剛經(金剛經), 木板本, 高麗 禪王 13(1386)年刊, 1冊 東 XI, 4-A, 6.

제도하였다는 관념이 없어야 하고, 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sup>8)</sup> 四相이 있으면 보살이 될 수 없다는 論理이다. 집착함이 없이 베푸는 無住相布施를 하고, 부처의 肉身이 영원한 眞理의 몸인 法身이 아님을 밝히고, 참된 佛身을 無相이라 한 것이다. 부처의 설한 법이 취할 수 있는 것은 說明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도 아니요, 법 아닌 것도 아니라 하여 如來의 說法에 대한 집착을 끊게 한 것이다.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東洋文庫 藏.

### 3. 朝鮮朝의 釋家類 典籍

朝鮮朝에 내려와서 佛典이 더욱 많아진다. 一般的으로 崇儒思想이 國是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佛書가 많이 간행된 역현상을 보이며 주목되고 있다.

- (1)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解(大顛和尚注心經). 1卷.<sup>9)</sup> 太宗 11年(1411)에 全羅道高敞文殊寺에서 印出된 鈔刻本이다. 이 經은 大顛禪師 了通이 述한 것으로, 그 內容은 本覺의 知慧를 가지고 一切衆生으로 하여금 忘心忘念을 없애고 生死大海의 彼岸을 나누고 不生不滅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여 衆生으로 하여금, 本心本性을 보이기 위한 經이다. 蓬左文庫 藏.
- (2)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冊.<sup>10)</sup> 이 책은 世宗 28年(1446) 丙寅 二月에 伽倻山에 있는 止觀寺에서 雕造한 것이다. 父母의 恩惠에 관해서 說教한 經典이다.
- (3)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sup>10)</sup> 이 역시 위의 恩重經과 合綴된 것으로서 世宗 28年(1446) 丙寅 2월에 伽倻山 止觀寺에서 印出된 것이다. 이 책은 文殊師菩薩이 釋尊에 대해서 一切衆生이 長壽滅罪의 法을 咨問받아 釋尊이 過去의 普光正見如來와 顛倒比丘尼와의 이야기를 想起시킨 滅罪長壽의 護念經이다. 唐의 佛陀波利(A.D. 676) 譯으로서 普光如來가 顛倒比丘尼에 앞서 世間에 5種이 懺悔難滅의 惡業이 있다 하여 殺父·殺母·殺胎·出佛身血 破和合僧을 說하여 이를 물리칠 것을 가르치고, 無明·行·識·名色·六入 등 12因緣을 說한 것이다. 이

8) 慶詞般若波羅蜜多心經解(大顛和尚注心經) 了通 註. 高敞文殊寺鈔刻本. 太宗 11(1411)年刊. 1冊. 蓬 104. 1. 43.

9) 佛說大報父母恩重經 佛陀波利(唐)譯. 木板本. 世宗 28(1446)年刊 1冊. 橫山藏.

10)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佛陀波利(唐)譯. 木板本. 世宗 28(1446)年刊. 1冊. 橫山藏.

- 역시 天地가 19.3X12.8cm, 5折(47.1cm) 無界·7行·15字本이며, 其他의 板式은 위 恩重經과 같다. 橫山 重藏.
- (4) 眞實珠集, 1冊.<sup>11)</sup> 世祖 7年(1462)에 刊經都監에서 雕造한 것이다. 眞音의 高僧傳으로 가장 廣博한 者의 列傳 속에서 歌名의 玄妙한 뜻과 큰 善의 知識의 緊要한 語句를 拔萃한 것이다. 古抗 無住居士 倪 妙行의 集. 이 책에서는 見性成佛을 直指한 것으로서 祖祖心傳하고 師師口授하여 假名을 붙이지 않고도 實相을 이야기하여 三教聖賢의 微妙한 말이 道에 附合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慶應義塾 圖書館 藏.
- (5) 天地冥陽水陸雜文, 3冊.<sup>12)</sup> 燕山君시에 王大妃가 內帑을 出施하여 木字를 雕造, 成宗을 위하여 水陸은 金剛山 奉訓에서 印出한 이 책은 水中과 陸上의 衆生들에게 施食하는 法會의 記錄을 集成한 것이다. 飲食物을 주어서 諸聖을 救濟하는 法要로서 佛을 禮拜하여 罪를 懺悔하는 懺法에 관한 글이다. 仙人은 流水를 마시고 鬼神은 淨地를 먹는다는 中國故事도 있다. 이 板本은 韓國에는 金斗鍾藏書에 卷上만 있지만, 今西龍에게는 完帙이 있다. 天理圖書館 藏.
- (6) 禪宗唯心訣全, 1冊.<sup>13)</sup> 燕山君 6年(1500)에 慶尙道 狹川 伽倻山 風栖寺에 留板된 것을 가지고 印出한 것이다. 이것은 永明智覺禪師의 唯心訣인 禪書이다. 取捨가 잃어지고 是非가 頓融하여 衆賢가 모두 사라져서 豁然한 眞淨이 思議에서 解說하지 않음이 없으니, 모두 大寂滅道場에서 視聽을 모두 잊고 身心이 붙어 있지 않아 緣에 따라서 性を 기르고, 곳에 따라 時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內閣 文庫 藏.
- (7) 大慧普覺禪師書, 1冊.<sup>14)</sup> 拙著 日本訪書志, p.599 參照.
- (8) 儒釋質疑論, 1冊, 同上, p.249.<sup>15)</sup>
- (9) 人天眼目, 2冊.<sup>16)</sup> 中宗 24年(1529)에 全羅道 順天에 있는 曹溪山 松廣寺에서 印出한 覆刻本이다. 이 책은 宋나라 晦巖 智昭의 撰이다. 南岳下의 臨濟滄仰의 二宗, 靑原下의 曹洞雲門法眼의 三宗의 五家의 諸尊宿에 의해 表示된 宗要를 各家

11) 眞實珠集, 倪妙行集. 刊經都監版, 世祖 7(1462)年刊, 3卷 1冊, 慶 44, 74, 1.

12) 天地冥陽水陸雜文, 不著撰人, 印經木活字本, 燕山君 2(1496)跋刊, 3卷 3冊, 天, 未整理.

13) 禪宗唯心訣全, 延宗(宋)述, 木板本, 燕山君 6(1500)年刊, 1冊, 內 3328, 1, 311-13.

14) 大慧普覺禪師書, 宗杲(宋)著, 慧然錄, 黃文昌重編, 徑山妙喜庵版覆刻本, 中宗 一景宗 年刊, 1冊, 天 188 人 107.

15) 儒釋質疑論, 己和撰, 木板本, 中宗 32(1537)年刊後刷, 2卷 1冊, 內 100, 45, 1 310-63.

16) 人天眼目, 智昭述, 全羅順天松廣寺刊, 木板本, 中宗 24(1529), 2冊, 天 188, 7人 147, 6.

下에 一括하여 編錄한 것이다. 天理圖書館 藏.

- (10) 旣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1冊.<sup>17)</sup>
- (11) 野雲自警. 1冊.<sup>18)</sup>
- (12) 發心修行章. 1卷.<sup>19)</sup> 明宗 18年(1563) 全羅道 綾城地 雙峯寺에서 開刊된 이 책은 신라시대의 元曉가 출가수행자를 위하여 지은 發心에 관한 글이다. 愛慾을 끊고 苦行을 할 것, 참된 수행자가 될 것, 늙은 몸을 담을 수 있으니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담을 것 등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중요한 古刊本으로 高宗 20年(1233)에 간행된 합천 해인사본이 가장 오래고, 한참 내려가 先祖 3年(1570)의 無爲寺本이 있으나, 그 중간에 明宗 18年(1563)의 雙峯寺本이 있다. 內閣文庫 藏.
- (13) 禪林寶訓. 2卷.<sup>20)</sup> 中宗 37年(1542)에 金剛山 表訓寺에서 開刊한 이 책은 禪林의 道德衰替를 검정하여 先德祖師의 嘉言善行을 수집하여 佛日을 挽回하고, 類網을 整備, 學人들로 하여금 箴言龜鑑에 의해 內省시키고, 佛道を 向上시키려는 佛典 중 禪書이다. 中宗 37年(1542)에 金剛山 表訓寺에서 開板한 것으로서 禡王 4年(1378)에 忠州 靑龍寺本보다는 훨씬 이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韓國에는 없는 逸書이다. 天理圖書館 藏.
- (14) 禪源諸詮集都序. 2卷.<sup>21)</sup> 明宗 8(1553)에 金剛楡帖寺에서 開刊한 이 책은 外道禪. 凡夫禪. 小乘禪. 大乘禪. 最上乘禪을 說明한 것이다. 一名禪那理行諸詮集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에는 無漏의 知慧, 一切의 神通妙用, 萬德萬行의 母로서 修禪을 떠나서 佛國寺에의 길이 없이는 聖道の 門이 없다는 論이다. 이 책은 韓國傳來本으로 宣祖 39年(1606)의 鷄龍山 栗寺本이 가장 오랜 듯하나 이보다 더 오랜 板本으로 明宗 5年楡帖本이 있다. 蓬左文庫 藏.
- (15) 金剛般若波羅蜜經及跋 1冊.<sup>22)</sup> 光海君 10年(1618)에 曹溪山 松廣寺에서 重刊한 이 책은 鳩摩羅什의 譯이다. 이 책에서 '金剛'이란 말은 堅·利·明의 三義를 뜻하

17) 旣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野雲玟 等著. 雙峯寺板 木板本. 明宗 18(1563)年刊. 1冊. 內 12051. 311-71.

18) 野雲自警. 野雲玟 著. 雙峯寺板 木板本. 明宗 18(1563)年刊. 1冊. 內 12051. 311-71.

19) 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 野雲玟 等著. 雙峯寺板 木板本. 明宗 18(1563). 1冊. 內 12051. 311-71.

20) 禪林寶訓. 淨善(宋)著. 金剛山表訓寺 木板本. 中宗 37(1542)年刊. 2卷 2冊. 天 1887. 人 113.

蒙山和尙法語略錄. 野雲玟 等著. 雙峯寺板 木板本. 明宗 18(1563)年刊. 1冊. 內 12051. 311-71.

發心修行章. 野雲玟 著. 雙峯寺板 木板本. 明宗 18(1563)年刊. 1冊. 內 12051. 311-71.

21) 禪源諸詮集都序. 宗密(唐)撰. 金剛山楡帖寺 木板本. 明宗 8(1553)年刊. 2卷 1冊. 蓬 104. 1. 57

22) 金剛般若波羅蜜經及跋. 鳩摩羅什 譯. 木板本. 光海君 10(1618)重刊. 1冊(書 1冊. 3. 123).

고, ‘般若’이란 말은 ‘知慧’를 일컫는다. 그리하여 實相·觀照·文字를 含有하여 公극에는 無執善을 高調하고 平等의 理가 差別의 相으로 活躍하고 差別의 相을 平等의 理에 歸入하여 中道中正의 眞理가 가장 선명해 지게 하는 것이다. 金剛經의 板種은 한국에서 헤아려도 現存本이 55種이나 異版이 있으나, 이 책은 또 다른 異版이다. 東洋文庫 藏.

- (16) 高峰和尚禪要. 1책.<sup>23)</sup> 仁祖 13年(1635)에 全羅道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에서 開刊한 것이다. 禪의 要領을 간추려서 說明한 책으로서 龐居士의 十方同聚會法文을 들어서 安心立命處를 볼 것과, 自己의 經驗을 들어서 疑情을 크게 가져서 道를 깨칠 것을 강조하고 마음을 밝히려면 一切의 善惡을 버려야 하고, 參선을 할 때 맑고 밝지 않음을 논하지 말고, 疑心을 일관해서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를 싣고 있다. 書陵部 藏.
- (17) 釋氏源流. 2卷.<sup>24)</sup> 이 책은 撰者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仁祖 26年(1648) 5월에 河浩然이 쓴 序가 있다. 이는 佛法을 守護하는 여덟가지의 靈的 存在인 餘裔書이다. 그 軌範을 들어서 衆手에 專授하고 文字를 流通시켜 化身을 쓰고 觀照를 流通하여 報身한다는 內容이다.
- (18) 金剛般若波羅蜜多經.<sup>25)</sup>

以上 日本에 流行된 高麗時代의 5種의 釋家類典籍과 朝鮮朝의 18種의 典籍을 본 다음과 같다.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澄觀(唐)述, 續大藏經系木板本, 高麗 宣宗11~肅宗5(1094~1096) 年刊 20卷, 卷子本 40軸.

大方廣佛華嚴經離世間品之二, 實又難陀(?)譯, 寫經體木板本, 高麗高宗-朝鮮初 37卷 1軸.

決定藏論(卷下零本) 眞諦(梁)譯, 再雕本, 高麗 高宗 30(1243), 梵夾本 1帖.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解, (大顛和尚注心經), 木板本, 了通註, 高敞文殊寺翻刻本, 太宗 11(1411)年刊, 1册.

佛說大報父母恩重經, 佛陀波利(唐)譯, 木板本, 世宗 28(1446)年刊, 1册.

23) 高峰和尚禪要, 持正(宋)錄, 洪壽祖(元)編, 龍藏寺 木板本, 仁祖 13(1635), 1册(書 30957. 1, 304-25).

24) 釋氏源流, 不著撰人, 木板本, 仁祖 6(1648)年序, 2卷 1册, (天 182. 5. 1.)

25) 金剛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譯, 安心寺 木板本, 1993 後刷, 上下, 2册(東 Ⅶ3. 73).

-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佛陀波利(唐)譯. 木板本. 世宗 28(1446)年刊. 1冊
- 鎮寶珠集. 倪妙行集. 刊經都監版. 世祖 7(1942)年刊. 3卷 1冊.
- 天地冥陽水陸雜文. 不著撰人. 印經木活字本. 燕山君 2(1496)跋刊. 3卷 3冊.
- 禪宗唯心訣全. 延壽(宋)述. 木板本. 燕山君 6(1500)年刊. 1冊.
- 大慧普覺禪師書. 宋杲(宋)慧然錄. 黃文昌重編. 徑山妙喜庵版覆刻本. 中宗-景宗年間刊. 1冊.
- 佛釋質疑論. 己和撰. 木板本. 中宗 32年(1537)刊後刷 2卷 1冊.
- 皖山正疑禪師示蒙山法語. 野雲珩. 雙峯寺板木板本. 明宗 18(1563)年刊. 1 1冊 人天眼目智昭述. 全羅順天松廣寺刊. 木板本. 中宗 24(1529), 2冊.
- 野雲自警. 野雲珩著. 雙峯寺板木板本. 明宗 18(1563)年刊. 1冊.
- 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 野雲珩等著. 雙峯寺板木板本. 明宗 18(1563)年刊. 1冊.
- 蒙山和尚法語略錄. 野雲珩等著. 雙峯寺板木板本. 明宗 18(1563)年刊. 1冊
- 禪林寶訓. 淨善(宋)著. 金剛山表訓寺木板本. 中宗 37(1542)年刊. 2卷 2冊.
- 鎮江府大聖普照禪寺. 蓮庵和尚總錄. 元靖(宋)編. 木板本. 明宗-仁祖(1546~1649)刊 1冊.
- 禪源諸詮集都序. 宗密(唐)撰. 金剛山楡帖寺木板本. 明宗 8(1553)年刊. 2卷 1冊.
- 金剛般若波羅蜜經及偈. 宗密(唐)撰. 木板本. 光海君 10(1618)重刊. 1冊.
- 高峰和尚禪要. 持正(宋)錄. 洪喬祖(元)編. 龍藏寺版. 木板本. 仁祖 13年(1635)刊 1冊.
- 釋氏源流. 不著撰人. 木板本. 仁祖 6年(1648)序. 2卷. 1冊.
- 金剛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譯. 安心寺木板本. 1993年後刷. 上 2冊. 下

#### 4. 結 言

이상에서 본 바, 日本에 流傳된 韓國版 釋家類 典籍은 西藏의 原經을 複印 또는 覆刻한 것은 없고, 朝鮮中期的 僧侶 時空 野雲大禪師가 印出한 「皖山正疑蒙山法語」, 「野雲自警」,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蒙山和尚法語略錄」 등 이외에는 없다. 그 밖의 것은 모두 中國人의 譯이 있을 뿐이다.

板本은 「天地冥陽水陸雜文」만이 印經木活字로 印出되었을 뿐, 그밖의 것은 모두 木板本이다. 아마도 佛經은 施主들이 佛經에 대한 信仰心이 두터워 刻苦의 뜻으로 極樂世界로 指向하려는 것에서일 것이다. 苦行을 마다하지 않은 信念을 가지고 있어, 寫刻手일지라도 精誠껏 雕造하는 것이 하나의 使命인 것처럼 느껴져서 印出하였거나 혹



은 普及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木板本으로 印出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高麗朝에서는 宜當 大藏都監이 있어서 印出되었음은 自然스럽고 崇佛의 國是에서 오히려 獎勵했을 것이나, 朝鮮朝에 와서 崇儒抑佛의 國是였는데도 佛書가 적지 않게 刊行된 것은 特異하다. 文殊寺·妙喜庵·雙峯寺·表訓寺·楡帖寺·龍藏寺·安心寺 등에서 印出된 것이 그 例이다. 刊經都監에서도 佛書가 印出되었으니 이는 朝鮮朝社會를 다만 事大니 혹은 排佛이니 하는 문제는 再考의 餘地 있다. 또한 그 많은 佛書가 日本에 流轉된 史實에서도 偶然일 것인가 또 하나의 課題이다. 어떻든 위 佛書는 極少量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韓國에 없는 逸書라는 데도 注目되고 있다.

## ABSTRACT

## The Buddhist Scripts of Korea Flowed into Japan

Shim Woo-Choon\*

There are no exact copies or carvings of India's original Buddhist Scripts published in Korea that had been flowed into Japan except those of WanSanJungUiMongSanPuPo(皖山正疑蒙山法語), YaWoonJaKyung(野雲自警), KyeChoShimHakInMoon(誠初心學人文), PalSimSooHangChang(發心修行章) and MongsanWhaSangPupoRackLock published by a mid - Chosun Dynasty Buddhist monk, YaWoon TaesunSa. Others are the translations by Chinese people.

All printings were of woodblock except ChonJimyungYangsoo - RhockChapMoon(天地冥陽水陸雜文) of Inkyng wood printing type. This shows perhaps that the Buddhists were so devout that they spared no effort in their prayers to head for the Paradise. Even the woodblock carver himself took his hard work for granted in his belief and engraved the blocks with all his heart taking his work as God-given task. Or, perhaps they to use wood-block printing as the demand for the Scripts soared. By the way, as the Koryo Dynasty took Buddhism as the state religion, it was natural that the Buddhist Scripts were published at TaeJangToKam (the publishing office) and were much encouraged. It is noteworthy, however, that not a few Buddhist Scripts had been published during the Chosun Dynasty despite its crack-down on Buddhism as the Confucianism was declared as the state principle. The Scripts were even published by such temples as MoonJooSa(文殊寺), MyoHeeAm(妙喜庵), SsangbongSa(雙峯寺), PyoHoonSa(表訓寺), YooJupSa(楡帖寺), YongJangSa(龍藏寺), and AnShimSa(安心寺). The fact that the Scripts were even published by KanKyungToKam(刊經部監) leads us to reconsider the

---

traditional way of thinking of the Chosun Dynasty as anti-Buddhist or flunkeyist. The historical fact that a record number of Buddhist publications had been transmitted to Japan - is it accidental? - This issue could well be another subject matter for further research.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very few of above-mentioned Buddhist Scripts are found in present-day Korea.